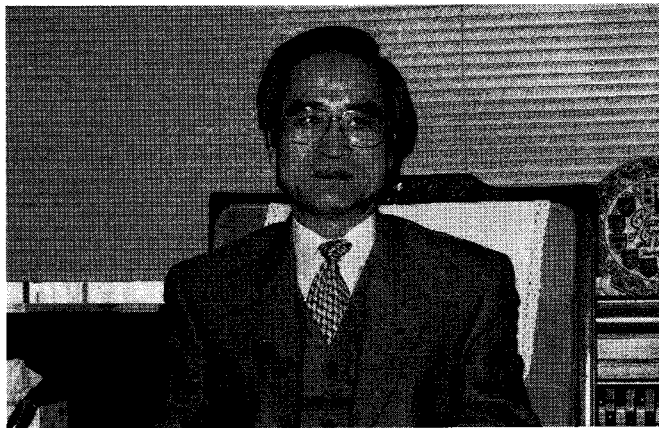


## 해운간 노뭇돌을 놓는 물류인 컨테이너, 팔레트, 포장의 규격화 선행되어야

조정제 / 해운산업연구원 원장



▲ 조정제 원장

**물류환경이** 시대의 변화를 인식이라도 하듯 다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해운산업의 발전방향과 대응전략에 관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하고 있는 해운산업연구원 조정제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해운, 항만, 해양에만 알려져 있는 해운산업을 전분야의 기간산업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물류환경은 경제활동의 세계화로 해외조달, 생산, 판매체제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내적으로 수송수요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품생명주기의 단축 등으로 국내 화물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다빈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동량의 흐름이 중요하

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동량의 거점화는 우리나라를 중심축으로 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북아물류거점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는 94년부터 해운산업연구원을 이끌어 오면서 해운항만의 산업동향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이를 정부·학계·업계에 널리 보급해 오고 있다. 또한 산·학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인적교류를 통해 해운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1966년도에 행정고시를 합격했고 76년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을 만큼 정치·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조원장은 국가 경쟁력확보와 물류비절감을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국제화 시대의 도래 및 동북아 물류체제가 확대됨에 따라 연안수송에 따른 항만의 역할도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며, 일관수송체제의 구축을 위한 항망 상호간에 있어서도 network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국내화물의 컨테이너화와 일관수송체제 구축에 있습니다. 제주도와 육지간 수송되는 컨테이너도 대부분의 경우는 운송업자가 제작한 컨테이너로서 95년 현재 26개 업체가 약 1만6천개의 컨테이너를 확보·운영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각 다른 규격의 컨테이너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하역장비의 표준화나 수송장비의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시장은 결국 해운을 통해 물동량이 움직인다는 것이 그가 21세기를 내다보는 세계질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싱가포르나 로틀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배센터(distribution park)’ 시스템을 우리 항만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종합물류기지로서의 역할, 즉 항만주변에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로지스틱스시설이 돼 있어 Loading Unloading, 고부가치의 창고시설, 텔레포트 기능, 금융수반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며 부러움을 토로했지만 우리가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세계화 추진위원회의 핵심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현실성에 밝은 미소를 비쳤다.

조원장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있다. ‘남북의 통일이다.’ 통일이 된다면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자연스레 해결된다는 생각이다. 협소한 항만시설이 그렇고, 흘러 넘치는 물류비용이 그렇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북아의 확고한 경제적 중심지로 자리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제3의 이윤창구(물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작년부터 화물유통촉진법이라든가 유통,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등 나름대로의 많은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원장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소성대(以小成大)란 한자성어가 말해 주듯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작은 것으로부터 크게 키워 나가야 합니다. 여지껏 한반도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흘러 왔는데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부는 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선진국의 물류시스템의 연구와 그에 따른 투자, 업계는 포장의 규격화와 팔레트 표준화로 자생력 확보, 그리고 각 단체에서의 장기정책방향 제시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물류개선을 위한 연구와 자라온 후배들의 주례사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조원장은 인간의 품도 하나의 물류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등산을 적극 권장한다.

96년은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해운간 더 많은 노동들을 놓는 물류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K]

변준섭 기자